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우주여행>의 작품 설명을 중심으로

2016***** 조형찬

목차

- 가. 서론
- 나. 본론
 - 1. 작중 인물들의 인간상
 - 2. 작품의 주제의식
 - 3. 작품의 미학적 특징
 - 4.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해답
 - 5. 작품 의의
- 다. 결론
- 라. 참고 문헌

가. 서론

작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이 쓰인 1970년대에는 사회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공공연히 들어나 있었다. 암묵적으로 자본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이고 빈민들은 그들의 피지배계층이었다¹⁾.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표면적으로는 지배, 피지배 계층이 사라졌는지 몰라도 그 내면은 다르다. 여전히 사회는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둘 중 무엇도 가지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이끌려 다닐 뿐이다.²⁾ 그런 현실에도 자신들이 피지배계층으로서 종속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동안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둔한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자본이 권력이 되고 권력으로 사회를 소수의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비판의식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신을 가둔 이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해야 한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잘 담은 소설 “난쏘공”의 특징과 함께 작중 3번째 이야기인 <우주여행>에서의 인물들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물상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³⁾

나. 본론

1. 작중 인물들의 인간상

작품 “난쏘공”의 3번째 이야기 <우주여행>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들의 유형을 통해 지향해야 할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 그리고 인물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정원채(201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스타일의 다원성과 미학적 혁신, 현대소설연구, pp.2~3, pp.15~16.

2) 정원채(2010), pp.2~3, pp.15~16.

3) 송현호(2000), 『한국현대소설론』, 민지사, pp.404~405, pp.409~412.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물로 지섭이 있다. 지섭은 타락한 지구세계에서 떠나 달나라를 동경하는 인물이다. 그는 책 '일 만년 후의 세계'를 읽으며 이상세계를 갈망한다. 책의 <우주여행>부분에서는 그의 실천적 저항의식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는 소설 전체에서 볼 때 현실의 부조리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배계층과 당당히 맞서는 인물이다. 그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는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과 잘못됨을 말하고 이를 바꾸려고 행동하는 사람과는 큰 굉장히 차이가 있다. 지섭은 행동하는 사람이며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사람을 계몽하고 그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행동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설 속 지섭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물상이다.

다음으로 <우주여행>부분의 주동 인물인 윤호다. 윤호는 지배계층의 자녀로서 그는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지섭을 만나고 그로부터 달나라의 세계와 우주인을 보게 된다. 지섭을 통해 현실세계의 타락함을 알게 되고 순수한 세계인 달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윤호는 같은 지배계층 자녀인 인규의 유혹에 고민한다. 그는 결국 자신이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어떠한 타락의 유혹에도 순수성을 잃지 않는 은희를 보며 다시금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이러한 윤호의 모습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지는 못하는 인물로 보인다.⁴⁾ 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아 지배계층의 자녀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호의 모습은 우리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따라야 할 모습이라기 보단 소위 지배계층인 부유층 시민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하여 직접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작은 악마라 불리는 인규다. 인규는 작품 속에서 하나의 악으로 묘사되곤 한다. 주동 인물 윤호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타락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하는 인물이다. 그는 윤호처럼 지배계층의 자녀다. 즉,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잘 못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단지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같은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는 사회의 어두운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은 그대로 성장하여 똑같은 지배계층이 되어 소시민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인규와 같은 인물은 소설 속에 있지만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라져야 할 인간상이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순수함을 가진 인물 은희다. 은희는 작품 속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그 순수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보이는 이런 순수성은 작품의 주동 인물 윤호를 자책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를 위로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은희의 모습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은희는 순수함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은희에게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함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은희와 같은 인간상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작품의 주제의식

지구와 달의 세계. 힘없는 피지배계층 소시민일 뿐인 지섭과 난장이에게 지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희망 없는 땅이다. 지구의 세계와 그들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인 달의 대비를 통해

4) 박규준(2008),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의 이데올로기 연구, 현대사상, p.55.

작가는 현실과 이상향의 괴리를 보여준다.

윤호는 많은 자아성찰과 갈등을 계속해가는 인물이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기 직전의 청년으로서 아직 사회에 물들지 않은 백지와도 같은 상태이다.⁵⁾ 윤호는 지배계층의 자녀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순수와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지섭이 보여준 희망없는 현실을 보고 난 후 지구의 세계에 실증을 느끼며 이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지섭이 말한 어떠한 약속도 맹세도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타락한 현실세계에서 작가는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한 당대 사회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던 지섭이 사라지자 윤호는 방황하게 된다. 그런 그에게 나타난 작은 악마 인규는 윤호를 타락한 지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다. 윤호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규는 전형적인 그 시대 타락한 지배계층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쾌락과 향락을 좇으며 자신과는 다른 윤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하며 기존의 지배계층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으며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아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유혹적인 현실세계와 마주한 윤호는 그들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인다. 그들과 함께 있지만 순수성을 잃지 않는 은희를 보며 이미 타락한 세계에 물든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다. 작은 악마 인규의 제안으로 시험문제를 보여주기까지 하며 타락한 자신을 끝내기 위해 그는 권총을 찾고 자살을 결심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윤호의 자아성찰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윤호는 더러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여기며 죽음으로 순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로의 도피로 볼 수만은 없다. 그가 가고자 한 이상세계를 통해서 현실세계의 타락하고 희망이 없음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 생각할 수 있다.

은희는 맑은 순수성을 가진 인물이다. 현실과 이상세계 그 둘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느라 지친 윤호가 현실에서 보인 타락한 행동들 또한 모두 이해하고 포용한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 작가는 순수의 세계를 꿈꾸다 좌절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내민다.

3. 작품의 미학적 특징

윤호가 동경하는 달의 세계와 현실세계인 지구 사이에는 우주라는 공간이 있다. 윤호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모습이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한 인물의 고통스런 갈등의 과정을 우주여행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제목으로 풀어낸 것에는 아마도 작가가 힘든 현실에서 계속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섭은 달나라의 세계 즉 순수한 이상향의 세계를 꿈꾸는 인물이다. 그는 난장이일가가 살고 있는 빈민가에 자주 가서 그곳의 삶을 느끼고 현실세계, 지구의 세계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지섭이 자주 보던 책 '일만 년 후의 세계'는 지배계층의 억압으로 희망을 품을 수 없었던 시대에 순수한 이상향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자 탈출구라고도 볼 수 있다.

지섭과 윤호가 본인에게 비유했던 도도새는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쓰지 않아 결국 퇴화되고 멸종되기 까지 하는 새의 종류다. 여기서 도도새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괴리가 심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 소시민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윤호의 경우 사회적 지위는 지배계층이지만 현실세계와 맞서지 않고 타협했기에 소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날갯짓은 이상향의 세계로 가려는 혹은 현실세계를 바꾸어 보려는 노력의 몸짓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

5) 박규준(2008), p.55.

스로 날개를 움직이는 것을 멈추었고 결국 퇴화되어 날 수 없게 되었다. 즉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지 않고 순응하여 결국에는 불합리한 현실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퇴화된 도도새의 운명은 멸종이다. 타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한 소시민들은 지배계층에게 아무런 저항한번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게 된다.

작품에서 윤호에게 작은 악마로 인식되는 인규는 지배계층의 자녀다. '악마'란 수식어는 타락한 현실세계를 유지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붙인다고 할 수 있다. 지배계층 부모의 자녀인 인규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며 타락과 향락의 세계로 윤호를 유혹한다. 작은 악마 인규가 같은 지배계층 자녀들과 동아리를 이루며 보여주는 향락적인 행동들은 지배계층끼리 결속하여 새로운 지배층을 만들어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습들이 마치 윤호에게는 작은 악마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인규의 유혹에 흔들린 윤호는 동아리 여자와 잠자리를 갖게 된다. 여기서 잠자리는 순수의 세계를 꿈꾸던 윤호가 타락한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시작이며 그런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맑고 순수의 결정체와도 같은 은희는 윤호의 방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성을 보여준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상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순수함을 가진 은희는 현실과 타협해버린 윤호를 알몸으로 안아주며 가장 따뜻하게 윤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4.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해답

이 작품이 쓰인 때는 1970년대다. 그렇다면 그 당시와 현재 도도새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겉보기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회계층은 존재하며 그것이 존재하는 한 도도새의 의미는 항상 같을 것이다.

작은 악마라 불리는 인규는 윤호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윤호를 작은 천사라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악마'란 수식어는 현실세계를 유지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붙는다. 그렇다면 천사는 그와 반대로 현실세계에 도전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려는 인물에게 붙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윤호의 경우 그런 수식어를 갖기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직 윤호를 '작은 천사'라 부를 수는 없다.

은희는 윤호와 같이 인규의 동아리에 속해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쩌서 은희는 동아리 안에서 자신의 순수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순수성을 가진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작가가 소설속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물상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윤호가 권총을 찾으면서 했던 말 '이제 곧 끝난다.'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볼 수 있다. 윤호는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면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 이상향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달나라로 가서 많은 일을 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윤호가 달나라에 가서 하고자 한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희망이 사라진 현실세계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순수한 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윤호는 꿈꿨는지 모른다.

<우주여행>의 마지막에서 윤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은희가 알몸으로 위로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은희는 알몸으로 위로를 하였을까?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윤호는 자신이 타락에 버린 것에 절망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은 은희를 보며 더욱 괴

로워 한다. 그런 윤호를 보며 은희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윤호를 위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은희는 아주 순수한 존재이지만 은희가 입고 있는 옷들은 타락한 이 세계의 옷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을 해치는 존재는 모두 벗은 채로 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윤호를 위로한 것이라 생각한다.

5. 작품의 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피지배층이었던 도시의 빈민들, 즉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지배층에 대하여 갖는 갈등과 저항의 자세를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작가 조세희가 12편의 단편 소설들을 묶어서 만든 소설로 <우주여행>은 그 중 3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총 12편의 작품들이 각각 독립성을 지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⁶⁾

지배계층의 자녀인 윤호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달나라의 세계를 꿈꾸는 지섭과 만나면서 그와 함께 지구의 어두운 단편을 알게 되고 순수한 이상향의 세계를 동경한다. 작가는 지배계층의 타락한 유혹과 순수한 이상향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윤호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그 시대의 지배계층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현실세계에 대해 갖는 고민을 담아낸다.

다. 결론

<우주여행>은 아직 치우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윤호의 시각으로 타락한 현실과 순수한 이상세계의 경계를 바라본다. 그는 주위 인물들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갈등하는 지배계층의 자아성찰 과정을 보여준다.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 않는 도도새가 되었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도시의 시민이 될 것을 역설한다. 이상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윤호의 모습은 작품이 쓰인 197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 까지도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러한 윤호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주는 은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의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고통 받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도시의 빈민가 소시민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는 모순이 많고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래왔다. 하지만 그 세계를 미래에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물려줄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사회에 문제를 느끼고 개혁의 필요성이 느끼는 것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판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선 안 된다. 더욱 발전시키고 행동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설 속 지섭이 원했던 “일 만년 후의 세계”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라. 참고 문헌

박규준(200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데올로기 연구, 현대사상, p.55.

송현호(2000), 『한국현대소설론』, 민지사, pp.404~405, pp.409~412.

6) 송현호(2000), pp.404~405, pp.409~412.

조세희(201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정원채(201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스타일의 다원성과 미학적 혁신, 현대
소설연구, pp2~3, pp15~16.